남악롯데아울렛 개점 지연…속타는 협력업체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목포시-무안군 사용 승인 갈등 입점업체 인건비 부담·의류 판매 시기 놓칠라 전전긍긍

남악복합쇼핑몰(롯데아울렛) 건축물 사용승인을 놓고 목포시와 무안군이 갈등을 빚으면서 입점을 준비하던 관련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롯데아울렛 오픈에 맞춰 겨울 상품 등을 준비하던 입점 예정 업체와 협력업체들은 개장 차질로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목포시와 남악롯데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롯데아울렛인허가와 사용승인의 불법성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하수배출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무안군의 롯데아울렛인허가에 반발하고 있다.

13일 롯데아울렛 입점 업주 등은 "이 아울렛에 입점되는 브랜드는 패션 158개 등총 173개 협력업체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데 매장 오픈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점 업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

다"고 주장했다.

오픈지연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다. 아울렛 입점 브랜드 중 85%인 140여개의 브랜드 가 중간관리 및 대리점으로 운영되는데 이 매장의 스태프 급여를 중간관리 샵매 니저 및 대리점주가 부담하게 된다.

스태프 인원은 브랜드별로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여명으로 평균 인건비 250만원으로 추정했을 때 800만~3000만원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롯데아울렛 입점을 준비하는 황지성씨는 "가맹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비용으로 약 6억원을 투자하고, 100평 규모의 매장에 종사할 인원을 20여명 채용한 상태이다"면서 "오픈 지연에 따른 직원 이탈과 유지비용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해다

또 다른 점주 왕홍단씨는 "50평규모의 인테리어비용 2억원을 투자하고. 당초 12 월 초 개점을 목표로 직원채용 및 숙소까 지 월세로 준비했는데 오픈 일이 불투명 하면 업주들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겨울시즌에 개시하게 되는 아울렛의 상품 입고금액은 판매액 기준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현재 60%의 입 고율을 보이고 있다.

이 상품들을 12월 중 소진하지 못할 경 우 시즌오픈 및 이월에 따른 매가하락으 로 판매 기회비용이 약 200억 정도로 추산 되고 있다.

또한 현재 근무 예정 총인원은 아울렛, 마트 포함 총 1200여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목포 무안 지역 출신 근무자는 70% 이 840명에 당하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아 롯데아울렛의 오픈 일정 은 불투명한 상태다.

남악롯데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안 군이 지난해 건축물 건축허가 당시 적시한 '조건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승인이 적법한 행정인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도 무안군이 애초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마저 무시한 특혜행 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무안군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반발해 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법원에 하수배출금지가처분신청 유해다

한편 무안군은 복합쇼핑몰 건축허가 당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 이후 오수관로 접합, 건축물 사용승인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여부 확인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남악신도시와 목포 옥암지구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남악하수처리장의 용량이 포화상태로 증설의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초 12월 완공예정이었던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지연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의 적법성이제기되어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1 코스피 2035.98 (+8.74)

➡ 금리 (국고채 3년) 1.68% (-0.06)

↑ 코스닥 611.09 (+8.01)

♣ 환율 (USD) 1167.00원 (-1.20)

현대기아차 수출 부진에 선사도 울상

현대글로비스·유코카캐리어스 3분기 매출 8% 감소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최근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선사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선사들은 해운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자동차 교역량이 받쳐주는 덕분에 선방했지만, 더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비껴가기 힘들어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수출 물량을 양분하는 현대글로 비스와 유코카캐리어스의 올해 3분기 자동차 해상운송 매출이 감소했다. 현대 글로비스의 3분기 해외물류 매출은 1조 5386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전 분기 대비 1.9% 감소했다. 현대·기아차 파업과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산유국 수요감소로 완성차 해상운송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었다.

현대·기아차와 함께 유코카캐리어스 지분을 보유한 유럽의 발레니우스 빌헬 름센은 올해 3분기 매출 6억5600만 달 러에 영업이익 6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각각 8%, 19% 감소한 것이다.

빌헬름센은 3분기 실적자료에서 "계 절적인 요인과 더불어 한국 자동차 업체 파업으로 운송 물량이 더 줄었다"며 "파 업은 수익성에 예상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시장에서 자동차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선사들의 일감이 사라지고 있다.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은 올해 전 세계 자동차 해상운송 물량이 1980만대로 전년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자동차 해상운송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급감한 이후 조금씩 회복하면서 2013~15년 연간 1.4%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경제난에 처한 개발도상국이자동차 수입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다시하락세로 돌아설 태세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동화속 눈의 나라 'KJ원더랜드' 개관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13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1층에서 김한 광주은행 은행장과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속 눈의 나라를 재현시킨 'KJ원더랜드' 개관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관을 맞은 'KJ 원더랜드'는 본점 1층 KJ스퀘어에 위치 하고 있으며 산타, 루돌프, 트리 등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새 하얀 눈으로 덮인 기차 마을과 북극곰, 이글루 동굴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해 지역민과 어린이들에게 겨울왕국으 로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KJ원더랜드는 내년 2월 12일까지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시간은 평일 및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평일 10명이상 유치원 등의 단체 관람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김한 광주은행 은행장은 "앞으로도 광 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다양하 고 지속적인 지역공헌사업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수입차 내년 국내 판매 24만대 전망

올해보다 4% 늘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2017 년 수입차 시장 규모를 올해의 예상 판매 대수인 22만8000대보다 약 4% 늘어난 23 만8000대로 전망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폴크스바겐 사태 등으로 독일 산 디젤차 판매가 위축돼 2010년 이후 이어져 온 두 자릿수 연간 성장률 행진 이 멈추고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 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2% 늘어난 24만3900대의 수입차가 신규 등록됐다.

내년에는 아우디·폴크스바겐의 판매 중 단 조치가 풀리고 각 브랜드의 SUV, 크 로스오버 등과 같은 다양한 차종의 신차가 국내 시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판매량은 올해보다 4% 늘 어나겠지만, 증가 폭은 2015년 수준에 는 못 미치는 23만8000대 수준이 될 것 으로 수입차협회는 내다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년부터 잔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여신가이드라인 개정

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그 후속조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이 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여신전문위원회의 가결을 통해 가이드라 인을 개정했다. 잔금대출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 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 준 DSR이 80%를 초과한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동금리 선택 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평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소득 증빙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소득 등당 3와 대용도 포함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변 경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해 혼란 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영업점에도 변경 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신보, AI 피해기업 4천억원 특례보증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AI)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AI 피해기업을 대상으 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13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 말까지 보증 총량을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 운용한다. 특히 AI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추진 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 등으로부터 AI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복구자금을 배 정받은 직접피해기업, 가금류 가공 및 유통기업 등 간접피해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게 연 0.5%(간접피해기업 연 1.0%)의 고정보증료율과 90% 보증비율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